

네트워크가 만드는 예술과 공동체 윤리: 안토니 아바드의 <바르셀로나*어세서블> 연구

유 가 은 (국민대학교)

- I. 서론
 - II. 코이노니아 : 열린 현대의 공동체
 - III. 도래하는 공동체 :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동체
 - IV. <바르셀로나*어세서블>에 나타나는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체 윤리
 - V. 결론
-

I. 서론

본 연구는 안토니 아바드(Antoni Abad)의 <바르셀로나*어세서블 *Barcelona* accessible*>(2006-2013)이 동시대의 예술실천으로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 윤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 윤리의 이론적 고찰로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개념인 코이노니아(koinonia)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도래하는 공동체’ 개념을 알아본다. 양자는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이 네트워크의 매체적 특성인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통해 코이노니아와 ‘도래하는 공동체’가 제시하는 환대와 공존의 윤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살펴보겠다.

II. 코이노니아 : 열린 현대의 공동체

코이노니아(koinonia)는 그리스도교에서 공동체를 나타내는 개념 중 하나로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 친교, (영적)교섭, 나눔, 참여, 협조, 긴밀한 관계, 관대함, 구제, 자선, 도움, 공동체 등의 뜻을 가진다. 코이노니아의 동사 형태인 코이노네오(koinoneo)는 ‘공동으로 가지다, 같은 피와 살을 나누다, 연합하다, 참여하다’의 뜻으로 주로 ‘누가 가진 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로부터 그리스도교 맥락에서 이 동사의 의미를 유추하면 그리스도교인들이 각자 소유한 것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친교와 공동체의 삶을 이룬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코이노스(koinos)’란 단어가 ‘공유(common)’를 의미했다는 점은 ‘코이노네오’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 그리스도교에서 사람들이 성체를 나누어 먹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똑같은 지체(肢體)로서 하나임을 인식하는 행위를 뜻하는 ‘코뮌(commune, 성체를 받다)’은 나눔을 통한 연합, 즉 공유에 따른 공동체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영어 ‘commune’이 ‘공동체, 친교(하다), 성체를 받다’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공동체를 뜻하는 ‘commune(함께 살면서 책무, 재산 등을 공유하는 집단)’과 ‘community(종교·인종·직업 등이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그 어원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코이노니아는 무언가를 서로 주고, 그것을 받음으로서 하나가 되는 상호공동의 관계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런데 동일한 것을 각각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구성원들의 일치뿐 아니라 개별성 역시 허락한다. 즉 단일화된 하나가 아니라 개별성들을 아우르는 일치이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중심 사유인 만인에 대한 환대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이방인들을 환대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신에 대한 사랑이 이웃(타자)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예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40) 따라서 코이노니아는 열린 환대의 공동체로서 이방인들이 자기 고유함을 유지하면서도 속할 수 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III. 도래하는 공동체 : 개별성들이 살아있는 공동체

아감벤은 도래하는 공동체(The coming community)를 ‘임의적 특이성(whatever singular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임의적 특이성은 예(example)의 속성이다. 어떤 예는 같은 종류의 모든 개별자들을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개별적이다. (“사과는 과일의 한 예다.”에서 사과는 과일이면서, 또한 사과 자체라는 뜻도 함께 지닌다.) 따라서 예는 보편에만 혹은 특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과 특수에 모두 속한다. 이렇듯 보편적이지만도 특수하지만도 않으면서 자신을 그 자체로서 제시하는 것이 임의적 특이성이다. 아감벤은 도래하는 공동체를 임의적 특이성들의 비본질적 ‘연대’라 말하는데 이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어떤 동일성으로 고정되게 묶이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순간적 공통성에 의해서만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도래하는 공동체는 고정된 경계가 없는 공동체로서 개별자들이 자유로이 속함과 탈퇴를 할 수 있는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다.

도래하는 공동체는 메시아적 성격을 가진다. ‘도래하는’은 ‘미래의’란 뜻이 아닌 가능성을 나타낸다. 임의적인 것은 항상 잠재성을 띄기 때문이다. 임의적 존재는 ‘-일 가능성’과 ‘-이 아닐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기에 임의적 존재들이 모인 도래하는 공동체는 잠재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만 현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도래하는 공동체는 표상 불가능하며, 실제 작동하지 않는 무위(無爲)를 통해 생성된다. 아감벤은 모든 윤리 담론은 인간이 정립해야 할 어떤 본질, 사명, 운명 등이 없다는 점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가능성을 가장 기초적인 윤리적 경험으로 여긴다. 이런 점에서 도래하는 공동체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다. 이렇듯 언제나 존재할 수 있지만 항상 지연되고, 각 개체들이 자체로 허락되면서 존재론적 공통성만으로 공동체가 되는 비규정적 성격은 도래하는 공동체의 메시아적 측면을 보여준다.⁴⁶⁾

IV. <바르셀로나*어세서블>에 나타나는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체 윤리

<바르셀로나*어세서블>(2006-2013)은 안토니 아바드의 <메가포네.넷 *megafone.net*>(2004- 현재) 연작 중 한 프로젝트이다. <메가포네.넷>은 사회 약소자들이 모바일 폰과 자체 제작한 웹 방송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게 하는 작품으로 미디어에 의해 무시되는 그들 집단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때 모바일 폰은 참여자들이 자기 경험을 담은 영상과 음향을 생성해 웹상에 즉시 올릴 수 있게 함으로서 디지털 메가폰의 기능을 한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40명의 바르셀로나 휠체어 장애인들을 참여자로 초대했다. 참여자들은 바르셀로나 거리를 다니면서 만난 장애물들의 사진을 찍어 GPS가 가능한 모바일 폰을 통해 그것을 웹(web)에 전송, 게재한다.

46) 다른 한편 도래하는 공동체는 큰 정치적 논의 가능성을 가진다. 그것은 포함되는 자와 배제되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대개 공동체에 포함되는 보편자와 거기서 배제되는 특수자를 구분함으로써 포함과 배제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아감벤의 앞선 언급에 비추어 볼 때 도래하는 공동체는 배제된 특수자를 보편에 포함시키기 위한 윤리적 담론인 동시에 차이의 정치와 관련된 한 논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웹 상의 바르셀로나 지도에 장애물의 위치를 표시해 도시에 대한 실시간의 자기 접근성(또는 접근불가능성) 지도를 만든다. 또한 참여자들은 여기서 얻은 정보와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웹 방송을 제작하는데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직접 만나 생각을 나누며 협력한다. 이로부터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해 집단의 입장을 보호하게 하는 정치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와 도래하는 공동체의 앞선 논의의 맥락에서 본다면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사회에서 배제된 약소자들을 사회로 편입시키려는 윤리적 의미 역시 내포한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에서는 모바일 폰 네트워크와 직접 만남을 통해 참여자들의 참여, 나눔, 협력이 발생한다. 그 결과 이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집단을 탄생시켰다. 여기서 참여, 나눔, 협력, 일치는 직접적으로는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이 의도하는 정치적 성격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것으로 윤리의 문제를 수반한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7년간의 오랜 실행기간 동안 참여자들이 서로 공감과 친교를 나누었을 것이란 점에 초점을 둔다면 언급한 요소들은 공동체의 윤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이같은 실천들은 <메가포네.넷>의 맥락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약소자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이 가진 정치적이면서도 윤리적 측면을 보여준다. 한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의 윤리적, 정치적 상호작용이 모바일 폰 네트워크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온·오프라인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지만 모바일 폰 네트워크의 실행-찍은 사진을 웹에 전송해 공유하기-이 없다면 참여자들 간의 효율적 상호작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즉 모바일 폰 네트워크는 참여자들 간의 윤리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그 매체적 특성 상 개체와 집단을 공존 가능하게 한다. 네트워크는 작은 점들이 서로 연결된 그물망 형태로 디지털 공간에서 작은 점들은 노드(node)라 불린다. 노드는 하나의 주소가 가능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인에 비유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은 연결된 선을 따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이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일시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 이는 개인(소유)의 집단화, 그리고 집단(소유)의 개인으로의 분열이 유동적임을 뜻하는 것으로 곧 공유(共有)의 의미와 일치한다. 네트워크 구조는 개체성과 공동체를 함께 허용한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에서 각 참여자들이 찍은 사진들은 모바일 폰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어 직접 만남에서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 논평된다. 그리고 웹 방송 내용을 비롯한 모든 선택들은 공동으로 행해진다. 결과 각 사진들은 그것을 찍은 사람의 이름과 함께 인터넷 지도에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사진들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참여자들을 포함한 세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네트워크의 개인의 것을 공동체화 하는 능력에 의한 것으로, 곧 네트워크의 매체적 특성인 공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개별 참여자와 참여자 집단의 존재를 모두 인정한다. 이런 공동체는 각 구성원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도 유지될 수 있기에 윤리적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네트워크가 공동체 윤리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의 집단지성의 방식은 네트워크에 의한 개별성과 공동체의 공존의 윤리를 잘 보여준다. 집단지성은 다수 컴퓨터 이용자들의 협력으로 달성되는 집합적 행위의 결과물, 판단과 지식의 축적물이나 그 과정을 뜻하는데 참여자 개인의 관점-사진과 의견-을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공화하는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피에르 레비(Pierre Levy)는 성경에 나오는 롯의 환대와 아브라함의 협상을 통해 집단지성의 윤리적 성격을 설명한다. 롯은 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홀로 이방인(두 천사)을 환대함으로써 소수로 남고 아브라함은 다수(의인 10명)를 위해 신과 협상했다.(창세 18-19장) 두 경우는 모두 선행으로 레비는 이를 통해 선의 유지에 개별성과 보편성이 함께 요구됨을 인식한다. 여기서 롯은 타인에 대한 환대를 통해, 아

브라함은 다수의 인적 자질(선함)을 이용하여 선을 행하는데 이는 각 개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집단의 입장을 형성해가는 집단지성의 원리와 통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술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에서 모바일 폰은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 사용되는데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의 ‘대화적 매체’ 개념을 통해 그 윤리적 측면을 고찰할 수 있다. 대화적 매체란 망형 구조의 대화를 발생시키는 매체를 말하는데, 망형 구조의 대화란 대화에 참여한 모든 파트너가 중심을 형성하고 정보들의 합성은 망 전체로 확산되어 일어나는 대화를 뜻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고받으며 확산되는 소통 형식으로 잡담, 수다, 욕설, 소문 등 인간의 많은 대화들이 이에 해당된다. 플루서는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를 인용해 망형 대화에 내재한 실존적 문제를 윤리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부버는 유대인의 존재론에서 인간이 자신을 ‘나’로 인식하는 것은 신이 그를 ‘너’로 부르기 때문이라 말하는데 이는 비신학적 맥락에서는 타인이 나를 ‘너’로 부름에 따라 나는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플루서는 유대-기독교에서 대화의 의도는 타인에 대한 인식과 타인을 통한 자기인식이라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측면에서 대화의 유대교적 분석은 소통이 목적이라 말한다. 그리고 플루서는 이런 논리를 뉴미디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최근 뉴미디어는 망형 구조의 특징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는 컴퓨터, 모바일 폰, 텔레크 등에 의한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는 것을 망들(네트워크)에 의해 영혼이 포착되는 것에 비유하며 이를 망형 구조 속에 내재된 메시아적 특징이라 언급한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에서 참여자들은 모바일 폰을 통해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바일 폰을 이용해 인터넷 지도를 함께 만들고 그 경험을 토대로 토론한다. 채팅, 화상대화,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등 모든 것들이 직·간접적 대화의 방법들이다. 간접적 대화는 마치 누군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와는 실제 대화를 할 수 없지만 같이 게임을 즐기는 다른 이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적 매체 개념에서 볼 때 <바르셀로나*어세서블>에서 네트워크는 참여자들 간의 실제 관계 및 웹에서 이 작품을 본 대중들의 잠재적 관계를 형성시켜 작품의 정신적, 윤리적 측면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을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공동체 윤리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작품이다. 그리하여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개별자들이 유지되는 열린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환대의 윤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형식적 면에서는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그렇지 못하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참여자들만의 규정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일정 시간 동안 댓글을 허용하는 기회를 가질 때도 있지만 대개는 장애인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자신들을 보여주는 통로이다. 이에 대해 아바드는 <메가포네.넷>의 모든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배제된 집단을 위한 것으로 참여 집단의 활동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대중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장애인들의 입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직접 접할 수 있다면, 상처의 가능성도 있지만 장애인과 일반 시민 사이의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노출되는 점은 열린사회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세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을 보고 장애인들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적, 무위적으로 개별성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도래하는 공동체의 형상과 부합한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을 접한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열린사회를 잠재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언급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야기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V. 결론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을 공동체 윤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초점을 둔 공동체 윤리는 환대와 공존으로 양자의 의미는 상통한다. 그리고 이는 각각 그리스도교의 코이노니아와 아감벤의 도래하는 공동체 개념을 통해 열린 환대의 공동체와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설명될 수 있다.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네트워크의 매체적 특성인 공유를 통해 이같은 환대와 공존의 윤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점에서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은 오늘날 예술, 윤리, 기술이 만나는 복합적 실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남순. 「탈정치적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코스모폴리턴 이웃 사랑의 신학」. 『기독교사상』 (2014): 222-42.
- 김종기. 「해체 이후 거대 서사의 가능성과 아감벤 - 아감벤의 별거벗은 생명과 도래하는 공동체」. 『대동철학』 8:1 (2017): 103-36.
- 레비, 피에르. 『집단지성 :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권수경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2.
- 신앙과직제위원회. 「코이노니아 교회일치운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1 (1993): 361-436.
- 아감벤, 조르조. 『도래하는 공동체』. 이경진 옮김. 꾸리에북스, 2014.
- 오우성. 「신약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1 (1993): 163-89.
- 플루서, 빌렘. 『코뮤니콜로지』. 김성재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Bostad, Finn, et al., eds. *Bakhtinian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Culture: Meaning in Language, Art and New Media*.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04.
- <https://megafone.net/site/index> (2018년 10월 6일 검색).
- <https://megafone.net/barcelona/about?lang=1> (2018년 10월 6일 검색).

「네트워크가 만드는 예술과 공동체 윤리: 안토니 아바드의 〈바르셀로나*어세서블〉 연구」에 대한 질의문

이 임 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본 논문은 기독교의 코이노이아 개념과 조르조 아감벤의 도래하는 공동체 개념을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동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참조하면서, 모바일 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 내 장애물 웹 지도를 제작하는 참여 프로젝트 <바르셀로나*어세서블>을 환대와 공존의 윤리의 실현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바드의 프로젝트가 실현하는 환대와 공존의 윤리는 “배제된 특수자”를 “보편”에 포함시키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사회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이동과 장소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 모바일 폰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으로 통해 장애인 권리 옹호 집단이 형성됩니다. 다음으로 작업에서 부각되는 점은 모바일 폰 네트워크의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개별 참여자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참여자와 작품을 본 대중들 사이에 잠재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작품의 윤리적 차원을 실현케 한다고 봅니다.

1.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타자와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윤리적 차원의 실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실제로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 등이 결성된 사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의 기초적인 개념으로 언급한 공동체 개념에 관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논문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도래하는 공동체’의 메시아적 성격은 임의적 존재들의 공동체를 전제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항상 잠재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표상 불가능하고, 실제 작동하지 않는 무위를 통해 생성된다”는 이 공동체는 아바드의 <바르셀로나*어세서블> 프로젝트의 윤리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일까요? 이 문제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폰으로 형성되는 참여자들 간 사회적 관계의 윤리적 측면을 빌렘 플루서의 ‘대화적 매체’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매체는 인터넷의 소통구조와 유사한 망형 구조의 대화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실제 벌어지는 대화의 내용과 그 실제적 결과를 통하여 윤리성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형식을 통하여 윤리성을 확신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일견 인터넷과 유사한 소통 구조를 보이는 이 매체를 타자와 자아를 인식하는 윤리적 소통의 매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